

청소년 창의력 캠프 큰 성과

포천여중 120명 청소년 참가



포천시청소년상담실(실장 김영진)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포천베어스타운리조트 및 주급실에서 청소년 창의력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포천 지역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용이한 시설 및 기관 등과 연결하여 창의력 함양을 위한 청소년 체험형 수련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일 개회식과 김영진(경복대 교수)

상담실장의 특강 및 서바이벌 게임, 창의력 게임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0일에는 심상 트레킹(주금산), 창의력 향상훈련, 창의력 게임, 또다른 나의 모습 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창의력 게임으로는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한 글짓기로 6 단어 제시 및 글짓기 내용 발표, 6개 단어가 포함된 문장 완성, 발표 및 그림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 편견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 그

리는 자신이 그리고 싶은 나무 그리기, 20미터 위에서 본 나무, 나무 밑에 누워서 본 나무, 지하 5미터에서 올라 본 나무 그리기, 그림검토 및 느낌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호흡법과 심상트레킹은 명상을 통한 자기암시로 집중력 및 창의력을 함양하고 정신력 및 체력단련과 심폐기능 및 지구력 향상을 도모했다. 포천시청소년상담실은 이번 캠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차와 3차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9월18일부터 19일까지는 일동초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한국축구 사령탑에 조 본프레레

독일월드컵 종료시까지 감독직 수행



우 월드컵 종료 시점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이로써 본프레레 감독은 이로써 지난 4월 움베르투 코엘류 전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한 이후 두달 만에 바톤을 이어받아 태극호의 선장이 됐다. 본프레레 감독은 아시아컵 본선(7월17일~8월7일·중국)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프레레 감독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 한국의 아시아컵, 월드컵 예선 상대인 중동 팀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네덜란드어 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불어를 잘 구사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올림픽대표를 지낸 본프레레 감독은 90년 나이지리아대표팀 수석코치를 맡아 90년 아프리카컵 준우승과 94년 미국월드컵 8강을 이끌었고 95년 대표팀 감독이 된 뒤 96년 애틀랜타올림픽 우승을 일궈냈다.

한국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네덜란드 출신의 조 본프레레(58) 감독이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맡아 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우승한 본프레레 감독과 17일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프레레 감독의 임기는 21일부터 독일월드컵이 끝나는 오는 2006년 7월20일까지 25개월 간이며 독일월드컵 임정이 연기될 경

홍명보, LA서 올림픽성화 봉송

미국내 한인들 대표해 봉송길



보는 17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올림픽 성화 미국 봉송 첫날 코리아타운을 가로질러 할리우드 톱 스타인 톱 크루즈에 개 성화봉을 넘겼다. 전날 멕시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성화는 제임스 한 시장에 의해 첫주자인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에게 전달됐으며 스탤론은 자신이 주연, 감독했던 영화 '록키'의 주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첫 발을 내디뎠다. 할리우드 스타는 물론 올림픽 수영 3관왕인 재닛 에번스, 복싱 헤비급 스타인비탈리 클리치코, 프랭크 맥코트 LA 다저스 구단주 등에 의해 봉송된 성화는 산타모니카 해변과 웨스트우드, 베벌리 힐스, 할리우드, 코리아타운, 다저스 타디움을 들로스앤젤레스를 일주한 뒤 19일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할 예정이다. 올림픽 성화는 20일에는 애틀랜타, 21일 뉴욕으로 옮겨 미대륙 횡단을 마치고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동한다.

월드컵 4강의 주역 홍명보(LA 갤럭시)가 미국내 한인들을 대표해 아테네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섰다. LA 갤럭시에서 활동 중인 홍명

학교체육의 현장 4 가산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단

전인적 축구 꿈나무 육성의 요람

초등학교 축구부를 엘리트 위주의 운영보다는 심성개발 및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유소년 축구단을 찾았다. 포천에 30개 초등학교 중 축구부가 창단돼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가산초등학교와 일동초등학교 두 곳 뿐이다. 가산초등학교 축구부는 1인 1기(一人一技) 운동을 실천하고 우수 체육인의 조기 발굴 및 축구의 저변확대, 축구를 통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창의적 사고, 도덕적 품성을 지닌 신리하는 가산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산 초등학교 축구부는 1998년 3월에 창단했다. 창단 이후, 2002년 눈높이컵 전국초교 축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2003년 진주 시장배 전국초교 축구대회 3위, 2003년 전국 소년체전 포천군 예선전 우승, 2003년 제8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 3위, 2003년 포천군 축구협회장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가산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단은 세 종류로 반을 구분하여 학년별, 개인 기량별로 세분하여 일정한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다. 축구단의 연간 예산액은 1천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학교의 체육진흥회 및 가산지역 후원회, 가산지역 조기축구회 등의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청과 포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가산지역 조기축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매일 전기세도 조기회에서 일괄 부담하고 있다. 가산초교 운동장 한쪽으로 축구부 합숙소가 있다. 합숙소는 지역 동호인들과 축구에 애정이 넘든 사람들에게 의해 심시일반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완공됐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한 가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운동장 옆의 구름대가 운동장에 너무 근접하고 있어 선수들이 달리다가 부딪쳐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다. 김창성 교장은 금년 것으로 구름대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 빼듯한 학교의 살림으로는 실천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훈련 보조구장으로 풋살구장이 연초에 논의 되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조차 없다. 유럽 축구의 저변에는 풋살이 있다는 말이 있다. 풋살구

조기축구회와 지역주민들의 정성 돋보여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기초, 초급반은 1학년~6학년에게 걸쳐 주 2회, 높이뛰기 및 레크레이션 위주의 운동을 하며 비합속의 형태로 운영한다. ▶중급반은 3~4학년을 중심으로 주 6회, 패스, 트레킹, 킥, 슈팅, 기초기술 연마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비합속으로 운영된다. ▶고급반, 등록선수반은 5~6학년이 주축이다. 주6회, 1일 3회 오전, 오후, 저녁시간으로 구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기초체력, 패스, 트레킹, 슈팅, 헤딩, 부분전술, 팀 전술,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합숙훈련을 통해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주간 훈련계획에 따라 패스 및 돌아서기,드리블 및 페이팅, 컨트롤, 헤딩, 슈팅, 킥 훈련, 드리블, 스크린 훈련 등을 하고 있다. 고급반, 등록선수반은 5학년이 6명, 6학년이 9명이다. 중급반은 4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20명

장에서 모든 개인기량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 유소년 꿈나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한 가지씩 필요한 것들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 땅을 흘리는 과정을 인내하며 수고하듯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준비를 착실히 해야한다. 2004년 3월 차승룡 감독과 지광춘 코치가 새로 부임했다. 차감독은 안양중학교, 안양공고, 인천대를 졸업했다. 현역시절, 1994년~2000년 까지 국민은행축구단 선수, 21세 이하 청소년대표, 93년 동아시아 대표, 아시아컵 대표 등을 거쳤다. 차감독은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자신의 경험상 엘리트 코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수정 보완하고 선진국의 지도방식을 접목시켜 현재의 유소년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이다. 지광춘 코치는 1998년~2000년까지 부천 SK 축구단 선수로 활약했고, 2001년은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에서 활약한 바 있다. 가산초교 김창성 교장(사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지도자가 잡아 주어야 한다. 즐거운 축구, 즐거운 인생을 만들자. 각자의 이상형을 선정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가 되어라.남들을 배려하고 협동심을 기르는데 주력하면 훌륭한 선수, 훌륭한 가산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승룡 감독은 "축구는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협동심, 팀워크를 다지면서 운동하는 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 공부에도 등한시 하지 말고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라"라고 학생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희수기자 les5582@hanmail.net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 찾아오시는 길

★ 생산 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박스 종류
골판지박스, 톨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대표 이희선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팩스 : 031)534-5756